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70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7,5-10)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눅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눅니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17, 5-10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10/6 연중 제27주일)

거리의 가로수가 물들고 들과 산의 녹음이 형형색색으로 변하여 간다. 많은 사람들이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곳을 찾아 떠난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신비를 맛보며 그 안에서 쉬고 싶기 때 문일 것이다. 인도의 어느 신부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인간이 너무 오래 자연과 격리되어 있으면 정신은 메말라 죽게 됩니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일한 원칙을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인간이 자연과 너무 오래 격리되어 있으면 정신이 말라 죽게 되듯이, 인간이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하느님 사랑에서 너무 오래 격리되어 있다면 그 영혼은 메말라 죽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뿌리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창조 때 인간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다. 인간은 하느님의 숨결이 담겨진 존재이며 하느님 모상이 심겨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근원은 바로 하느님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늘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오늘 복음의 사도들의 간청은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이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의하는 의지’와 ‘따라야 나 행(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뿌리인 하느님께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의지와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격이 하느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강한 믿음의 비결이다. 뿌리를 찾지 않고, 뿌리에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은 말라버린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원의를 가진 신자라면 자기 일상에서 ‘매일’,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향하고, 하느님을 찾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도 안에서,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봉사활동으로, 애덕의 실천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하느님을 찾지 않는 삶의 태도는 바로 그 삶의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다.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하느님과 단절되어 있거나 하느님 사랑에서 격리되어 있으며 그 영혼은 메말라 죽는다.

따라서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의 기도는 ‘주님! 저희가 기쁘게 당신을 찾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기쁘게 당신을 매일 만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수원교구 10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10월 27일 산호세 교구 주교님을 모시고 새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의 오랜 간절한 염원이었던 새 성전으로의 이전을 순조로이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온 힘과 정성으로 애써주신 신부님과 건축 관련 봉사자들 그리고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와 봉헌의 결실을 맺은 산호세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 10월은 묵주 기도 성월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묵주 기도로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을 청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상권 1-7장

◆ 사무엘기에 대한 소개

저자: 이 책은 구성상 두세 개의 자료로 이루어진 듯하다. 사무엘이나 나탄 혹은 가드에 의해서 저술되었으리라는 유다의 전승이 있으나 사무엘의 죽음이 언급되는 등, 그와 같은 이유로 그 설을 믿기는 어렵다. 신명기계 전승자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료들을 모아 대략 기원전 550년경에 최종 집필했다고 보고 있다.

시대 배경: 왕조가 탄생되어 사울 임금과 다윗 임금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역사(기원전 1050-970년경).

편집 목적: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솔로몬 통치 시대에 그 초본이 문서화되었으며, 이 책은 바빌론 유배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였다.

주요 내용: 다윗 왕조의 탁월성과 죄악을 동시에 묘사하면서도 다윗 왕조를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알려 준다. 또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는 임금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야 미래와 희망이 있으리라고 증언한다. 사울과 다윗, 다윗의 즉위와 왕궁 사건들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 성서문제

1. 1사무 1,20을 읽고 다음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2. 1사무 1,26-27에서 한나가 엘리에게 한 말이다. 다음의 빈 칸에 맞는 답을 넣으시오.

“나리, 나리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여기 나리 앞에 서서 () . 제가 기도한 것은 () . 주님께서서는 제가 드린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 . 이 아이는 평생을 주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3. 1사무 3,1-21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사제 엘리에게 배운 대로 대답을 했다.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

5. 1사무 4,1-32을 읽고 다음 물음 중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주님의 계약 궤를 실로에서 모셔왔다.
- ② 주님의 궤를 진영 가운데 모시자 이스라엘은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 ③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하느님의 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죽었다.
- ④ 엘리의 며느리, 피느하스는 숨을 거두며 “하느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였다.

5. 1사무 5,1-7,1을 읽고 다음 물음 중 성경의 내용과 맞는 내용을 고르시오. ()

- ① 필리스티아인들이 죄책감이 들어 하느님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주었다.
- ② 주님의 궤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가니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솟아났다.
- ③ 필리스티아인들은 하느님의 궤를 돌려주며 ‘속죄 제물’을 주님께 바쳤다.
- ④ 벳 세메스 사람들은 주님의 궤를 보았지만 그들은 무사하였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첫 순간에 바로 깨달은 영적 천재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기까지 하느님은 인내롭게도 몇 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러야 했고, 사무엘이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사제 엘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 뜻을 알리시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 사제나 교회의 장상, 동료들을 이용하시는데 때로는 예상 밖의 합당치 못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서 들려왔던 하느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앎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밝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정수원 작곡

기도하며...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여 타
우 리 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종-기 하 고 봉사하 자 세 상 모두에 게
마 음 보-아 기 도와 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